봄학기 '초기불전학림' 열린다

초기불전연구원, 김해 · 서울 · 대구 등 각지에서

초기불전연구원이 봄 학기를 맞아 김해, 서울, 대구 등 각지에서 초기불교학림을 운영한다.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김해 장유 보리원에서 제8기 초기불전학림을 연다. 기간은 3월 27일~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재는 〈청정도론 제1권〉이다. 이번 강의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청정도론〉을 깊이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 강의로, 지난해 가을 학기를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051)321-8579

서울에서 준비하는 강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다. 장소는 잠실 불광사 불교교육원이며 3월 14일~5월 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오전반은 3월 15일~5월 31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의 횟수는 총 12회이며 교재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다. (02)417-2551

대구에서는 〈디가 니까야〉를 주제로 강의가 개최된다. 장소는 대구 관오사이며 4월 9일~6월 25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한다. 강의는 총 11회이며 부처님오신날은 휴강한다. 모든 강의는 지도법사인 각묵 스님이 맡는다. (053)471-664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장 서중호 취임

3월 5일 취임법회 "대구불교 위상 널리 알릴 터"

대구지역 범불교 종단연합체인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신임회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는 3월 5일 대구 NH컨벤션웨딩서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 · 취임법회에는 대구불교총연합회장이자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인 효광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외 연합회 종단 대표 스님,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기관 단체장 등 각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법회서는 대구불교총연합회 연혁소개와 류병선 前신도회장 이임사, 전임 회장단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서중호 신임 신도회장은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주어진 재임 기간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의 규모를 지금보다



대구불교총연합회장 효광 스님(사진 왼쪽)이 서중호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배 이상 넓히고 발전시켜 대구지역 행정기관들에 불교의 위상을 널리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중호 신임 신도회장은 현재 아진산업과 우신산업 등 국내외 8개 기업의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존경받는 기업인 상'과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중견기업인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화엄문도 화합 전통 살려나가자"

구례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 추모재 · 신년하례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3일 화엄문장 명선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 등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엄문도 합동 추모재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중은 근세 화엄사 중창조인 도강, 도천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에게 다례를 올리고 부도탑 참배를 진행했다.

명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안거가 해제했다. 곳곳이 선방이고 총림이며, 따로 공부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속적인 정진을 강조한 뒤 "우리



는 일불제자로 작게는 용성문중이다. 도강, 도천 스님 법맥을 이어받아 문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의해 화합문중의 전통을 살려나가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건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애국도량 울려 퍼진 국민 행복 발원

부산 삼광사, 3주간 관음기도로 국운융창 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백양산 자락 삼광사 대중이 일제히 목소리 높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렀다. 삼광사 지관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찬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울려 퍼진 그들의 기도는 오직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향해 있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애국불교도량으로 힘차게 도약했다. 삼광사는 정초를 맞아 관음기도 및 신중불공을 지난달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1일간 지관전에서 진행 중이다. 정초기도는 매일 밤 10시~새벽 3시 30분, 불공에 이어 관음기도로 이어진다. 이번 기도 동참 등록자는 3000여 명으로 평균 2000여 대중이 매일 밤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

매년 삼광사는 정초기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취임한 주지 세운 스님은 기도와 신행을 강조했고, 기도 기간을 7일에서 대폭 늘려 21일 동안 철야정진을 이어 갈 것을 밝혔다. 참가자도 2배 이상 늘었으며 개인 소원성취보다는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3월 6일 방문한 기도 현장에서 불자들은 주지 세운 스님의 기도 소리에 맞춰 함께 합장했고 눈을 감았다. 모두 일제히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장엄한 소리가 넓은 지관전을 가득 채웠다. 불자들은 끊임없이 절을 했고 머리가 희끗한 노보살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정진했다.

불자들은 기도 기간에 주지 세운 스님이 직접 이끌어 줘 동참 의지가 더욱 커졌다고 감사해했다. 또한 국가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초맞이 관음 · 신중불공
사부대중 3000여 명 동참
21일 동안 철야정진 이어
"마음자리 넓힌 계기 돼"

안숙이(55 · 부산 당감동) 불자는 "지난해 주지 스님이 오시고 난 뒤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다. 이번 기도 기간에도 스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함께 정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 힘이 나고 환희심이 난다. 특히 개인보다는 이웃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자신의 됨됨이가 더 커지고 성장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해숙(53 · 부산 기장) 불자는 "기도 후 1주일쯤 지나 남편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며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신장님이 도와주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도공덕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정초를 맞아 국가를 위한 관음 · 신중불공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기도에 동참한 대중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정진하는 모습.

현재 삼광사는 정초기도에 이어 매달 1~3일 정기기도를 진행하고, 특별정진 기도 기간을 정해 1주일간 철야기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주지 세운 스님 "삼광사는 수행기도 도량이다. 천태종 본산 창건 당시부터 수행을 중심축으로 두고 성장했다. 그 본래 역할을 더 강조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할 치유 대안은 오직 불교뿐이다. 수많은 정보를 통해 얻은 불교 가르침은 충분하다. 이제는 실천의 삶으로 사회의 주역이 되고, 365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는 3월 7일 지관전에서 삼광한글교실 졸업식을 개최했다. 삼광한글교실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1992년 천태종 종단차원서 설립된 한글 교실이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등록돼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삼광사는 초등학력 인정 과정에 이어 중등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학비는 무료이며 입학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051)808-2126

"학풍진작 · 참회로 佛法 실천"

전북불교대학 30주년
신입생 123명 유치해

전북지역 대표적인 불교전문 교육기관인 전북불교대학이 출산율 급감과 불자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불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3월 4일 완산불교회관 4층 큰법당서 '제31기 불교학과 및 제26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곡성 통명사 주지 법중 스님 등 스님들과 반재상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과 불교학과, 법사과 신입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은 전북불교대학은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시민강연회, 초



개교 30주년을 맞은 전북불교대학 신입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학풍진작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법회, 인문학 특강, 보살계, 산사수련회,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을 펼쳐 30년간 꾸준하게 재가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교직원과 동문들의 노력으로 123명의 신입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날 입학한 불교학과 92명과 법사과 31명의 신입생들도 "전북불교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참신한 학풍을 진작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참회와 발원을 통한 실천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식사에서 "불격(佛格)의 비단옷, 인격(人格)의 홑옷이란 말이 있다. 저부터 불격의 비단옷을 짓는 일에 힘쓰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겠다"며 "여러분들도 내적으로는 허접하면서 겉으로 비단옷을 과시하려는 그 마음에 이별을 고하고, 내적 성찰에 힘을 기울여 삶의 의미를 새기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동효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달력에 '혁명기념일'이라고 적어놓고 성불을 위한 수행이 시작된 날로 기억해달라"면서 "불교대학의 수업을 통해 윤회의 고를 벗어나 참 진리를 찾아 해탈할 때까지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생 51명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은 3월 4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서 불기 2561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과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화엄불교대학 29기 31명, 학림원 24기 20명이 1년 동안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지난 1년간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적 사찰에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박두섭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재학기간동안 성실히 학업에 임한 불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전생의 기억이 현생을 지배한다"

전생상담사 모집

옛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 상담의 특징은 단지 전생을 체험하는 자체 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면을 이용한 전생 상담 기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5,000여 명의 전생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법만을 엄선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드립니다.

TV 방송에 300여 회 출연한 임재형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개 강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총 5회 과정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육비 : 50만원 (수련 CD 및 교재 제공)

한국최면과학원 (042)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석교동 주민센터 옆)

신 화 불 사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25평 요사채. 팔작지붕. 육송재목 상태좋음 (재목만) 기와포함. 4천만원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맡배지붕, 저렴함.
- 5층,7층 석탑 (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 양도가 21억원 (서울) 잔고증명要 2억(보증금) 월 1천만원(세입자 있음)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38평 제실, 법당으로 매우 좋음. 가격 매우 저렴.

010-6545-2020

그 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